

# 광주서 5년만에 'バス켓 전쟁'

오늘부터 24일까지 여자프로농구 중립경기  
신세계·삼성생명 대결 등 순위 싸움 분수령

여자프로농구가 5년만에 빛고을 광주를 찾는다.

삼성생명 2010-2011 여자프로농구 경기가 21일부터 24일까지 광주 서구 염주동 빛고을 체육관에서 열린다. 지난 2006년 7월 광주를 기반으로 했던 신세계가 부천으로 연고지를 옮긴지 5년 만에 열리는 여자프로농구 경기.

21일 오후 5시 정규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신한은행 에스버드가 KDB생명 위너스를 상대로 4연승에 도전하고, 오후 7시부터는 모처럼 친정 나들이에 나선 신세계 퀸텟이 삼성생명 비추미와 격돌한다.

이번 대결은 중립경기 이벤트로 마련됐으며, 21일부터 24일까지 각 팀당 2경기

씩 총 6경기가 열려 광주의 겨울을 농구 열기로 수놓게 된다.

주말인 22일과 23일에는 오후 5시 각각 한 경기씩 진행된다. 22일 우리은행과 KB 국민은행이 만나고 23일에는 신세계와 삼성생명이 대결이 벌어진다.

월요일인 24일 오후 5시에는 KB은행과 삼성생명, 오후 7시에는 KDB와 우리은행의 경기가 벌어진다. 푸짐한 경품도 마련됐다. 한국여자농구연맹은 매경기 드럼세탁기와 자전거 등의 경품을 내걸고 광주 농구팬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

광주 중립경기는 치열한 순위싸움의 현장으로 농구팬들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올 시즌은 광저우 아시안게임 휴식기로

인해 경기수가 줄어 7라운드만 치르게 된다. 5라운드 일정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순위 굳히기'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플레이오프 티켓을 가져갈 4강 구도가 윤곽을 드러냈지만 1위와 3위 자리를 놓고 상위팀들의 경쟁이 뜨겁다.

3연승을 달리고 있는 1위 신한은행이 2

위 삼성생명에 3개임차로 앞서고 있지만 정규리그 우승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3위 신세계와 4위 KDB생명은 1

개임차의 접전을 벌이고 있어 광주 경기

에 따라 두 팀의 자리가 뒤바뀔 수도 있다.

한국여자농구연맹관계자는 "농구단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여자농구 중립경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신세계가 연고를 옮길 때 많은 농구팬들이 아쉬워하셨다. 오랜만에 신세계를 비롯한 6개 여자농구 단이 광주를 찾아 겨울 코트의 묘미를 보여줄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일(한국시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블 호프 클래식에 참가한 김비오가 파마 코스 13번 홀에서 드라이브샷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체고 양학선 최우수 체조 선수상

광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도마에서 금메달을 딴 양학선(19·광주체고)이 2010년 최우수 체조 선수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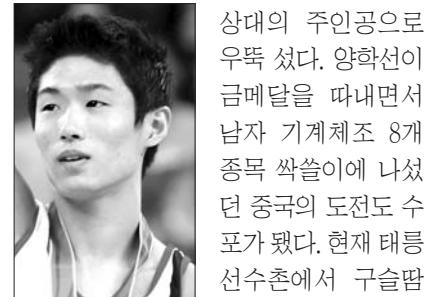
대한체조협회는 20일 송파구 오륜동 올림픽과 트랙에서 '체조인의 밤' 행사를 열고 양학선과 아시안게임 리듬체조 동메달리스트 손연재(17·세종고) 등 지난해 체조를 빛낸 선수 16명에게 상을 줬다.

이어 11월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압도적인 점수로 중국 선수를 따돌리고 시

임 금메달 포상금(1000만원)도 지급했다.

고교 졸업 후 한국체대에 진학하는 양학선은 지난해 아시아아시아나선수권대회를 제패한 뒤 처음으로 출전한 시니어 세계선수권대회 도마에서 4위를 차지하며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 가능성을 높였다.

이어 11월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압도적인 점수로 중국 선수를 따돌리고 시



상대의 주인공으로 우뚝 섰다. 양학선이 금메달을 따내면서 남자 기계체조 8개 종목 챔피언에 나섰던 중국의 도전도 수포가 됐다. 현재 태릉 선수촌에서 구슬땀을 흘린 양학선은 3월 19~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국제체조연맹(FIG) 월드컵 시리즈에 출전, 향상된 기량을 테스트한다.

/연합뉴스

## 최철한 4연승... 농심배 한국품에

### 세계 1위 中 쿵제에 대역전승... 통산 10회 우승

'독사' 최철한이 뒤집기 한판으로 마지막 승부를 장식하며 농심배 한국의 10번째 우승을 결정지었다.

20일 중국 상하이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제12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최종리운드 제3국'에서 한국의 최철한 9단은 중국의 주장 쟁재 9단과의 대결에서 접전 끝에 백으로 176수만에 불계승을 거두고 한국의 우승을 확정지었다.

최철한은 오늘 승리로 자신의 농심배 최다연승인 4연승과 더불어, 한국의 3년연속 우승, 통산 10회 우승을 이루는 트리플 크라운을 작성했다.

또한 시리즈 내내 직선적인 공격스 타일로 나서며 통산 10승(4패)째를 따내 19승2패의 이창호, 11승3패의 세허에 이어 농심배 본선최다승 단독3위에 올라섰다.

출전했던 모든 대회(2회, 3회, 6회, 8회, 12회)에서 우승을 하는 활약을 이어나갔고 이창호, 이세돌에 이어 자신의 손으로 우승을 결정지은 세 번째 선수가 되는 등 이번 대회 최고의 스타가 됐다.

이번 최철한의 승리는 1승4패로 열세를 보이던 상대인데다가 세계바둑최강국의 지위를 놓고 한국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인 쿵제를 상대로 한 것이어

서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 한편 최철한이 패하며 출전해야 했던 주장 이창호 9단은 10회 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우승에 '무임승차'하는 행운을 누렸다. 2년전에는 이세돌 9단이 이창호에 앞서 나와 창하오와 구리를 연파하며 대회를 조기 종료시킨 바 있다.

4연승으로 대회 우승을 결정지은 최

철한은 두둑한 상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확정된 상금은 1200만원의 대국료(1국당 300만원)와 연승상금 2000만원인데 거기에는 5명이 나누게 될 우승상금 2억원 중 기본수당 3200만원과 끝내기 수당 1700만원, 승리수당 약 1500만원을 합해 모두 약 9000만원이 최철한의 몫이다.

김비오는 2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 인근 파마 코스(파72·6930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2개에 보기 1개를 뚫어 1언더파 71타를 쳐 공동 98위로 마쳤다.

지난주 하와이에서 끝난 데뷔전 소니오픈에서 텁텁했던 김비오는 티샷 정확

도가 54%를 밟아도 어렵게 경기를 풀어나갔고 퍼트수도 32개까지 치솟아 아직까

지 PGA 투어 코스에 완전하게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 '루키' 김비오 코스 적응 힘드네

### 티샷 정확도 54%·퍼트수 32개

### PGA 블 호프 클래식 첫날 98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의 한국인 루키 김비오(21·넥슨)가 시즌 두 번째로 출전한 블 호프 클래식 첫날 하위권에 머물렀다.

김비오는 6번 홀(파5)에서 2m짜리 버디 퍼트를 집어넣어 언더파 스코어를 만들었지만 남은 3개 홀에서 더 이상 타수를 줄이지 못했다.

김비오는 함께 2주 연속 대회에 출전한 재미교포 나상우(28·타이틀리스트)은 라인카 코스(파72·7060야드)에서 버디 4개에 보기 1개를 곁들여 3언더파 69타를 적어내 공동 54위에 올랐다.

파마 코스에서 9언더파 63타를 친 데릭 래미(미국)가 단독 선두로 나섰고 니클라우스 코스(파72·6924야드)에서 8언더파 64타를 쳐 어린 J.J. 헨리(미국)가 1타차 2위로 주격했다.

/연합뉴스

## 우즈, 토리파인스에서 시즌 첫 출격

골프황제 태이거 우즈(미국)가 가장 좋아하는 토리파인스 골프장에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을 시작한다.

우즈는 20일(이하 한국시간)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토리파인스 골프장에서 열리는 PGA 투어 파마스 인슈어런스 오픈에 출전한다고 밝혔다.

우즈는 웹사이트에서 "대회를 기다려 왔다. 열심히 연습했기에 2011 시즌이 매우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우즈는 토리파인스 골프장에서 열린 대회에서 여섯 차례나 우승했다. 또한 이 대회에서는 11차례 출전해 여섯차례 우승을 포함해 10차례나 톱10에 드는 등 강한 면모를 보여줬다. 작년 11월 터진 셀스 스캔들로 곤혹을 치른 우즈는 우승없이 지난해를 보냈고 세계랭킹 1위 자리도 리 웨스트우드(잉글랜드)에게 넘겨졌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스윙 코치 존 폴리와 함께 연습하면서 부활의 날개를 펼 준비를 해왔다.

한편 이번 파마스 인슈어런스 오픈에는 최경주(41), 양용은(39), 강성훈(24) 김비오(21) 등 코리안 브리더스도 출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GG경매컨설팅(주)

• 위치: 법원입찰장 건너편  
잔금부족시 최저금리 대출알선

대표이사 노찬구 ☎ 222-1907

공인중개사 010-9311-1907

▶ 근린시설/근린상가/주유소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김정가 최저가 비고

광산구 월곡동 1120/3954 27억천 12억천 4층짜리

월곡동 115평 5억천 2억천 오래사원부2층

월계동 365/1238 12억2천평 8억5천평 유형승인필증

생활동 512/651 9억5천평 6억5천평 유형승인필증

장석동 3070/498 26억3천평 18억7천7백 주유소

신봉동 2311/112 20억4천평 16억5천평 주유소

종충동 737/722 115억6천6백 80억5천6백 3층간율

신도동 330/108 69억천 4억7천평 2억7천평

남구 주월동 715/3505 36억5천8백 25억천5백 7억5천평

동구 시신동 1060/36 4억9천9백 3억4천9백 단층

서구 새마을동 651/165 2억7천9백 1억5천9백 단층

세마을동 1730/456 12억3천9백 8억8천7백 주유소

장성군 장성읍 436/617 69억천 2억9천9백 시설공장

임상군 임상면 691/220 1억4천9백 6천3백 단층식당

월산면 7795/1052 6억6천9백 2억8천9백 기도, 주택

▶ 주택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김정가 최저가

남구 월곡동 206/196 1억5천9백 1억천

방법동 270/295 1억2천9백 8천6백

북구 두암동 181/320 2억5천9백 1억4천9백

광산구 월곡동 196/220 1억5천9백 8천5백

북구 양신동 316/140 1억5천9백 6천8백

▶ 숙박시설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김정가 최저가

광산구 월곡동 375/815 6억5천9백 3억5백

광산구 생활동 992/1357 17억4천9백 9억7천9백

▶ 공장/창고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김정가 최저가

광산구 월곡동 1711/1082 7억9천9백 6억5천9백

광산구 월곡동 10547/3870 29억9천9백 19억9백

광주 대전면 1268/494 3억4천9백 2억4천9백 드럼

### ▶ 아파트

### ▶ 상가주택

### ▶ 원룸/빌라/다세대/오피스텔

### ▶ 토지/전선/